

측근에 둘러싸인 대통령... "NO" 말할 입이 없다

새정부 일단 인사참사 '불통·코드 논란' 가열

국정철학 공유 강조... 여론·검증 무시 與조차 "靑 인사라인 문책하라" 요구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25일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자진 사퇴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과 취임 이후 직접 인선한 후보자나 내정자 중 6번째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상의해서 임명한 이홍을 전 현재소장 후보자의 사퇴까지 거론하면 7번째 인사 실패로 기록된다.

특히 자진 사퇴한 이들은 박 대통령이 핵심으로 꼽았던 부처의 수장들로, 심지어는 성절대 의혹 등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충격적이거나 공분을 느낄만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국정철학의 공유'만 강조하면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에 소홀하고 국민 여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용준 전 후보자의 각종 투기 의혹이나 김병관 전 내정자의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의혹,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절대 의혹 등은 검증에서 사가난 사례들이다. "같이 일해보고 믿을 만한 사람은 다시 또 기용한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참여정부 때 '코드 인사'의 또 다른 형태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검증에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김학의 법무차관 논란에서도 드러났듯 수개월 전부터 사실정보지에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에서도 관련 사항을 수사하고 있었음에도 인선에 어떤 반대나 부정적 입장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설치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이 고경 벨비고와 사안에 따라 유관 수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측근들만 구성되다 보니 '노(No)'라고 말하지 못하고 박 대통령의 의중만 살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같은 비판에 여담인 새누리당까지 합세하면서 그 수위는 높아지는 분위기다. 새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점 달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인사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인사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자고 일어나면 사퇴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건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새누리당 이경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

인사검증 방식을 바꿔 상향식 인사로의 전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의 기준 재설정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 논란을 빚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거센 공세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의 인사검증 방식을 바꿔 상향식 인사로의 전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의 기준 재설정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 논란을 빚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거센 공세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의 인사검증 방식을 바꿔 상향식 인사로의 전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의 기준 재설정 등을 촉구했다.

農道도 해양수산 1번지도...

잃어버린 전남

농림해양수산분야 장·차관급 인사 7명 중 6명 영남 독식 "호남 대면 누가하나"

최근 단행된 박근혜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차관급 인사에서 농도(農道)이자 해양수산 1번지도 전남을 비롯한 호남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2부 3청으로 구성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장·차관급 자리를 사실상 영남이 독차지하면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임명되거나 내정된 농림·해양수산분야 장·차관급 인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경북 의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인홍(부산) ▲농촌진흥청장 이상호(경북 구미) ▲산림청장 신원섭(충북 진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부산) ▲해양수산부 차관 손재환(부산) ▲해양경찰청장 김석균(경남 하동) 등이다. 모두 7명 중 6명이 영남인사로 채

워졌다.

신설된 해양수산부 장·차관급은 아예 PK(부산·경남)가 독차지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4명 중 3명이 영남인사로 채워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 인사'를 천명했지만 결과는 '영남 불쌍인사'라는 농수산업계 비판이 거세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곡성군)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는 특정지역 인사만 기록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인사관중으로 비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농수산업 기반조성사업 및 각종 정책사업 선정에서 지역 편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전남지역은 쌀 등 대부분 농작물의 20~70% 이상을 생산하고, 바다면적이 2만6450km로 전국 37%에 달하는데 관련 분야 장·차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농업, 해양 분야는 전남지역 인사를 발굴해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영남 편중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지역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수첩이 부른 참사... 대통령 사과·책임자 문책해야"

인수위 포함 12명 낙마 유례없는 실패 '거수기 전략' 새누리당 책임도 막중

민주당은 25일 해의 비자금 계와 보유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연루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가 청

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이남기 대위 회의에서 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외 비자금 운용 및 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적 인수위에서부터 낙마한 인사가 12명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사실패"라며 "박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나흘로 불통인사 사태와 구멍난 인사시스템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며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훈 의원은 "박 대통령의 수첩에서 비롯된 참사"라며 "박 대통령은 수첩을 버리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인사실패의 1차적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으나 '엑스맨' 중심의 청와대와 거수기 전략한 새누리당의 책임도 막중하다"면서 "야당과의, 국민과의 칸막이를 먼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새누리당 이경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

"새로운 '방통대군'을 보낸 것과 다를 없다"면서 "미디어법 날치기 때 상당한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측근인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었느냐"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특정 정파의 색채가 아주 강한 최측근을 임명할 때 대해 '제2의 최시중 사태'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환상제주 불사본 BIG HIT! 제주여행

3년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229,000~

완도항출발 (블루나래) 완도항고속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69,000~

목포항출발 (씨스타크루즈) 씨스타크루즈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55,000~

1일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팅 - 식사(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아름다운 해변을 주는 동백연역 기찻길여행 - 빅블루엔 살아있다 석부채타마공원 - 종식(대장) 한정식/옥동구이/나눔베고기(해물탕) - 오실목차비물관 유리회생 - (선박관광)산방산유람선 /선박관광 이용 안하는 분들은 승객선 전망대 임보리리조트(커피리조트) - 식사(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3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탐라랜드(산복동) - 삼나무숲길 경유 골짜기 테마여행 에코랜드 테마파크 - (선박관광)모니랜드(몽골리안마사주) - 성음민속마을 중식(도동채지렁이/가주생각떡갈래) - 조왕말승마체험 천가지 아름다운 있는 미천관광림지구 일출랜드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운 자태와 탁 트인 해안절경 섬지코지 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 해녀촌 - 농수산물 쇼핑 제주공항 도착 후 피켓팅 - 광주공항 도착

제주도골프투어-항공/선박골프패키지 1박2일

포항(항공) : 왕복 항공료 (유류세 불포함) + 렌트카 33시간 + 비자민트호텔22인실 or 골프빌 18층 + 18층 크리닉

목포(항공) : 카트비 / 캐디비 / 전일정 식비

※ 제주 모든 골프장 예약가능합니다. 견적 문의 주십시오!

(4인이상 1조 출발)

[영동2회] 테디벨라+블랙스톤 ₩405,000~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영동2회] 테디벨라+세인트 ₩385,000~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테디벨라+우리들CC ₩385,000~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영동2회] 테디벨라+세인트 ₩385,000~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영동2회] 라온+블랙스톤 ₩413,000~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담당: 공지에 대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번지 금호종합금융 4층 | 제주 T.1600-4800 서울 T.02-6404-4708 부산 T.051-469-7030 대구 T.053-425-0747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유여행사 374-1881

메이투어 070-7093-0555

한별투어 956-0045

첨단/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384-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고고투어 603-4416